

#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

Causal Relationships among Working Wives' Work-Family Conflict,  
Socialization of Housework, and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한양여자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조교수 임혜경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임정빈

Dept. of General Education for Woman

Hanyang Woman's Junior College

Ass. Prof. : He Kyung Lim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Jeong Bin Im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방법

IV. 결과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working wives' work-family conflict, socialization of housework, and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provided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recruited from working wives who had more than one pre-school child.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the responses of 536 working wiv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Basically Cronbach's  $\alpha$  to the reliability of major variables,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LISREL 7 program were

\*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performed to test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frequency of work-family conflict was affected by the flexibility of work time and wives' income. 2. The severity of work-family conflict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frequency of the conflict, the flexibility of work-time, and wives' education level. 3.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degree of socialization of housework were found to be the frequency and the severity of work-family conflict, wives' education, and the degree of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work. 4. The higher degree of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was associated with the higher level of family member's health status, the greater degree of the flexibility of work-time, and the greater degree of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직업과 가정의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주부는 시간의 제약성과 피로감등으로 인해 두가지 역할을 효율적으로 양립시키기 어려워 이중역할의 교차압력에 의한 갈등, 이른바 직업-가정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취업주부는 가정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시장생산에 투입하므로 가정생산에 부족한 시간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화폐를 사용하여(Skinner, 1983) 가사노동을 절감하는 시장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대체한다. 이렇게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이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라 한다(이기영, 1987). 가사노동사회화는 가정내 시간, 소득, 그리고 시장에서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의 효용을 고려하여 이뤄지는 대안적인 가정생활활동으로 취업주부가 직업-가정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정생활주기 전단계 중 가사노동량이 급증하게 되어 시간적,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클 때이다. 그러므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는 다른 단계에 있는 주부보다 직업과 가정역할의 수행이나 가정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따라서 가사노동수행방

안의 하나인 가사노동사회화에 대한 요구도 크리라 예측된다. 신체 취업주부 가운데 미취학 자녀를 둔 주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업-가정 갈등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직업-가정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얼마나 사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함으로써 가정관리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과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생활만족에 대해 이뤄진 연구 가운데 이들간의 총체적인 인과 관계에 관해서는 이연숙 등(1991)의 연구가 있고, 그외에 취업 주부의 직업-가정 갈등과 가사노동의 사회화(이승미, 1989; 이은주, 1991)와, 직업-가정 갈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정혜정, 1986)에 대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이들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가정관리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업-가정 갈등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가 직업-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빈도와 직업-가정 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정도,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정도를 파악하

고, 그것이 가정관리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Double ABCX 모델에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의 배경변수, 직업-가정 갈등빈도, 직업-가정 갈등 심각성, 가사노동사회화, 가정관리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 스트레스 모델인 Double ABCX 모델의 개념을 통해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을 분석하므로써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가족스트레스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 3. 이론적 체계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배경변수, 직업-가정 갈등 빈도, 직업-가정 갈등 심각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McCubbin과 Patterson(1982)이 제시한 Double ABCX 모델의 개념에 따라 이들 변수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 하였다.

Double ABCX모델에서 aA요인은 위기전과 위기 후 스트레스원과 긴장이 시간경과에 따라 누적된 것을 말한다. 취업주부의 직업역할, 가정역할, 직업-가정의 이중역할에 관련되는 가족의 건강상태, 근무시간의 융통성, 그리고 직업-가정 갈등빈도를 aA요인으로 보았다.

bb요인(가족적응자원)은 가족구성원 개인과 가족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자원을 들 수 있으며(McCubbin & Patterson, 1983) 여기에는 기존자원(existing resources)과 새로운 자원(expanded resources)이 모두 포함된다. 주부의 학력, 소득,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cC요인은 전체 위기 상황에 대해 가족이 인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은 cC요인으로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부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Chung, 1992)이나 맞벌이 부부가 인지하는 어려움(Meeks et al., 1986)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직업-가정 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직업-가정 갈등의 심각성을 cC요인으로 보았다.

coping(대처)는 스트레스원인 사건과 결과를 매개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처란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므로써 적응을 돕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대처전략으로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 에너지의 비용, 가족원의 선호, 시장재의 효용등을 평가하여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xX요인(가족의 적응)은 순적응(bonadaptation)에서 부적응(maladaptation)에 이르는 연속적인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므로써 적응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정관리만족을 적응요인으로 채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

취업주부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에서 우세한 것은 직업역할과 가정역할간의 역할간갈등, 즉 직업-가정 갈등으로서 이는 직업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어떤 측면에서 상호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된다(Greenhaus & Beutell, 1985).

우리나라의 취업주부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연적으로 직업-가정 갈등을 경험하며, 이때의 직업-가정 갈등은 직업과 가정역할의 양립에서 발생하는 역할간 갈등(interrole conflict)으로서 역할과중, 역할 방해, 역할양립불가능성에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진 취업 여성은 특히 시간과 에너지의 제약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Harrison & Minor, 1978) 시간과 에너지는 가정생산의 투입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 관리를 합리적인 가정역할수행 방안을 통해 모색하려 하므로 시간갈등과 긴장갈등을 직업-가정갈등의 하위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취업

주부는 시간갈등을 긴장갈등보다 더 많이 경험하며 특히 가정생활영역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혜령, 1991; 한경미, 1991)

배경변수가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의 건강상태는 취업주부의 가정역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요구요인이다.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 주부는 환자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피곤하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되어 가정역할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미취학기의 자녀를 둔 취업주부가 가장 피로울 때는 자녀나 가족이 아플 때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직업-가정 갈등의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족역할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취업주부에게 있어서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갈등을 크게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taines & Pleck, 1983)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주부에 대한 연구에서도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시간갈등(구혜령, 1991; 한경미, 1991)에 영향을 미쳐 근무시간이 융통적이면 시간갈등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이 직업-가정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Voydanoff & Kelly, 1984; 정혜정, 1986; 최자령, 1991). 이렇게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갈등을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갈등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하나의 차원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부의 소득이 직업-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거의 없다. 선행연구에서 가정의 경제 자원이 직업-가정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 주부의 소득과 가계소득의 두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때문에 동시에 독립변수로 채택할 수 없어 주로 가계소득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비록 실증적인 결과는 부족하지만 주부의 소득은 일종의 경제자원으로서 주부에게 성취감을 제공하고 역할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물질자원을 제공하므로 직업-가정갈등을 관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중요한 가족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에 행해진 한 연구결과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대되었는가에 대해 과반수 이상(62%)이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이연숙 등, 1991)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젊은 연령집단의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주부의 직업-가정 갈등을 경감시켜주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직업-가정 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던 점은 객관적인 갈등상황에 처하는 경우와 심리적으로 갈등을 인지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직업역할때문에 가정활동에, 또는 가정역할 때문에 직업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직업-가정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고 항상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Greenhaus, 1989).

이제까지 취업 주부의 직업-가정 갈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갈등상황과 주관적으로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시켜 하나의 갈등변수로 간주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직업-가정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가정관리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객관적인 직업-가정 갈등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주관적으로 갈등을 인지하는 것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보고 객관적인 갈등상황에 해당하는 직업-가정 갈등의 빈도를 요구의 축적요인(aA)으로, 직업-가정 갈등을 주관적으로 심각하게 인지하는 정도인 직업-가정 갈등의 심각성은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요인(cC)으로 분리시켜 연구모델에 포함시켰다.

## 2. 가사노동사회화

Becker가 1965년에 발표한 '시간배분이론'에 따르면(Becker, 1976) 주부가 취업하여 주부의 시간 가치가 높아지면 가사노동사회화를 많이 하게 된다. 취업주부는 취업으로 인한 시간부족을 해결하고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재화나 유급의 서비스를 시장

에서 구입하므로써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의 압박을 받는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시장재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가사노동사회화는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적응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사노동사회화경향을 살펴보면 재화대체는 식생활영역에서, 서비스대체는 제반 가정생활영역에 걸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정연주, 1986; 이기춘 등, 1989) 주부의 취업이 가사노동의 재화나 서비스의 사회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Douglas, 1976; Strober & Weinberg, 1980; Goebel & Hennon, 1982).

배경변수가 가사노동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Weagly와 Norum(1989)은 가족의 건강상태는 가족원들의 가정생산성을 제한하게 되므로 가사노동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연구한 결과 가족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주부가 불만족할수록 식생활을 사회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건강상태가 나쁘면 식생활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Schultz(1973)는 주부의 학력이 높아지면 인적자본이 구체화되어 가정내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촉진되므로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하고 이기영(1987)은 학력이 높은 주부일수록 재화및 용역의 구입을 통해 가사노동을 간소화 내지 합리화하는 욕구가 크며 새로운 상품을 받아 들이는 자세가 적극적이라고 하였는데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사회화수준이 높게 나타났다(Bellante & Foster, 1984; 이기영, 1987; 소연경, 1989; 이기춘 등, 1989).

Blood와 Wolfe(1960)의 자원이론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는 주부가 주로 담당하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데 보다 많은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연숙 등(1991)의 연구에서는 취업으로 인해 부인이 갖는 경제력이 가정내의 발언권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주부가 48.2%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취업주부들은 금전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으므로(Moore & Sawhill, 1978) 자원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Becker의 가정생산이론에 의거하여 기회비용방법으로 주부의 시간가치를 산출한 McCracken과 Brandt(1990)에 따르면 주부의 시간가치가 높을수록 시간제약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fastfood시설에 대한 외식비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연경(1989)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식생활의 상품화와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수준이 높으면 가사노동사회화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과 가사노동사회화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Strober와 Weinberg(1980)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는 시간압박을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시간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전략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Nichols와 Fox(1983)는 취업주부가 시간제약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간을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갈등과 가사노동사회화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Reilly, 1982; 이은주, 1991). 연구결과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는 있으나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과 가사노동사회화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취업주부는 직업-가정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비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사회화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가 직업-가정 갈등을 많이 경험하면 가사노동사회화수준도 높으리라고 예측된다.

### 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만족

취업주부가 가정관리에 대해 주관적으로 충족하다고 느끼는 가정관리만족은 가정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이며 관리행동의 산출로서(이연숙·두경자, 1992; 최호숙, 1992) 취업주부가 직업-가정 갈등을 관리하여 적응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정관리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가정관리만족으로 보고 취업주부의 순적응 상태를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배경변수가 가정관리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부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할수록 관리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두경자, 1993) 가족의 건강상태가 좋으면 가정관리에 대한 요구수준이 낮아질 것이므로 가정관리만족도는 높아지리라 예측된다.

이연숙 등(1991)은 취업주부의 직장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은 가정생활만족에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로써 근무환경이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리적 하위체계에 속하는 경제적 만족, 가사노동, 의사소통, 여가 등의 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임정빈, 1988).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는데(임정빈, 1988) 가정관리만족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계소득을 변수로 한 것이므로 주부의 소득이 가정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부의 소득도 재정적 복지자원으로 물질적인 생활의 환경을 풍요롭게 하므로 가정관리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라고 사료된다.

Rettig(1986)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힌 바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가사노동사회화와 함께 취업주부의 갈등대처전략으로서 채택되고 있기는 하지만(Strober & Weinberg, 1980 ; 이승비, 1989 ; 조성은, 1990)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주부가 시간관리에 대한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으며 (정혜정, 1986) 취업주부의 직업 가

정 갈등은 가정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kinner, 1980 ; Kopleman, Greenhaus & Connoly, 1983 ; 이연숙 등, 1991). 한편 최호숙(1992)은 주부의 가사노동갈등이<sup>1)</sup> 관리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두경자(1993)의 연구에서는 주부가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갈등은 전업주부의 가정관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주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 문제와 연구모델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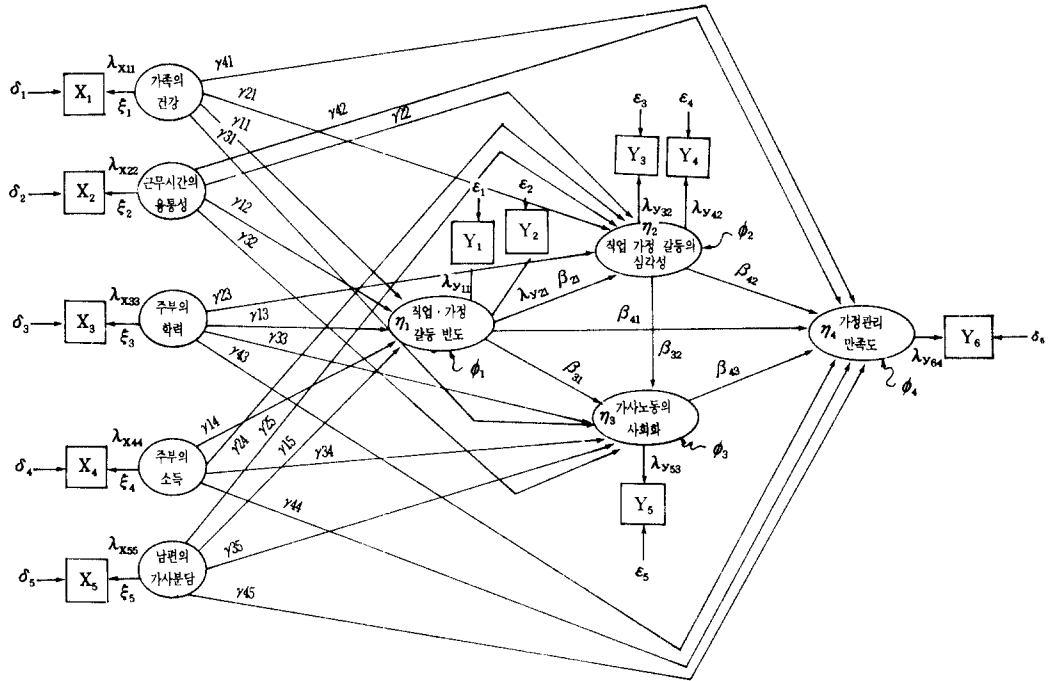
- 1) 비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의 배경변수, 직업-가정갈등 빈도, 직업-가정갈등 심각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 2) 비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의 배경변수, 직업-가정갈등 빈도, 직업-가정갈등 심각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을 Double ABCX 모델의 개념에 적용시켜 이론적 고찰에서 밝혀진 이들 변수간의 가설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수립한 연구모델을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도식화 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 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도구는 질문지이며 시간경과에 따라 취업주부가 갈등에 적응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취업주부의 배경변수와 취업주부가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한 직업-가정갈등 빈도와 직업-가정갈등 심각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

1) 최호숙(1992)은 취업주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가사노동대체에 따른 어려움과 가사노동수행에서의 심심피로를 모두 포함시켜 가사노동갈등이라 하였다.



(그림 1)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 빈도, 직업-가정 갈등 심각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에 관한 측정구조와 이론구조

리만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주부를 선정하였다. 단, 배경변수에 주부의 소득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남편의 일을 돕거나 가업에 참여하고 있어 주부의 소득을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시켰다.

표집절차는 먼저 직종을 총화하고 표집대상자를 각 직종별로 구분한 후 실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제보자 모집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1993년 6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먼저 가정관리학 전공자 10명에게 의뢰하여 연구내용에 따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여 질문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자기 보고법(self-report) 방식으로 하였다. 총 660부를 배부하여 601부(91.0%)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36부(81.2%)를 최종분석하였다.

### 3. 분석방법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고 빈도,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 Pearson's r을 구하였다. 가설적 모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관찰변수간의 Pearson's 상관계수행렬을 기초로 LISREL7프로그램에 의한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제 1절 기초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 2.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 가족의 건강 점수는 총점 15점 만점에 11.08점으로 중간 점수인 7.5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가운데에서는 남편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으며 다음은 자녀, 그리고 기타 동거가족의 순서였다.

주부의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28점 만점에 17.05점으로 중간점수인 14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비교적 융통성이 큰 근무조건하에서 일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내 융통성보다는 근무의 융통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수학연수는 평균 14.53년으로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이며, 소득수준은 월평균 95만 5천원이었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수준은 70점만점에 평균 38.87점으로 중간값인 35점보다 높아 조사대상 취업주부의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비교적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중심형 과제인 의생활관리에 대한 분담정도가 가장 낮고 식생활관리가 그다음이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공동형 과제인 경영 및 장보기, 육아 순서로 남편이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중심형과제인 주생활관리영역에서 분담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사노동영역에 따라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송혜림, 1988)와 일치한다.

주부가 직업-가정갈등을 경험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점수는 84점 만점에 40.21점으로 중간값보다 약간 낮게 나왔으며 시간갈등과 긴장갈등의 빈도를 나

타내는 점수는 42점 만점에 각각 20.89점과 19.28점으로 모두 중간값에 근사하였다.

직업-가정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정도는 70점 만점에 45.63점으로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간갈등과 긴장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정도는 각각 35점 만점에 22.39점과 23.65점으로 나타나 긴장갈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부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고 있는 정도는 총점 100점 만점에 41.61점으로 이러한 경향은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사회화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이기영, 1987; 이은주, 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가정관리만족 수준은 총점 30점 만점에 17.19점으로 중간점수인 15점보다 높게 나와 비교적 가정관리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2절 가설적 모델의 분석(연구문제 2)

###### 1. 가설적 모델의 분석과 수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델의 부합도는  $\chi^2$ 값이 336.05(df=17)이며 GFI=0.910, AGFI=0.651, RMSR=0.033,  $R^2=0.544$ 로 부합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련의 수정과정을 거쳐 모델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채택한 모델의 부합도는  $\chi^2$ 값이 39.39(df=29, p=0.094)이며 또한 GFI는 0.985, AGFI는 0.965이며 RMSR은 0.24로서 나타났는데 표준잔차를 나타내는 Q-plot은 기울기가 1보다 약간 큰 선형의 모습을 보여 잔차들이 정상적으로 분포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정모델의 구조경로는 <그림 2>와 같다.

###### 2. 수정모델의 분석

관련변수가 직업-가정갈등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에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gamma$ 경로계수와 내생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beta$ 경로계수, 그리고 모델에 의해 내생변수가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표 4-1〉 조사대상자인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N (%)	M (SD)
연 령	30 세 이하	191 (35.6)	32.002 (3.268)
	31 세 이상	339 (63.2)	
자녀수	1 명	299 (55.8)	1.470 (0.570)
	2 명	222 (41.4)	
	3 명 이상	13 (2.4)	
막내자녀연령	1 세 이하	134 (25.0)	2.921 (1.786)
	2 ~ 3 세	273 (50.9)	
	4 ~ 5 세	88 (16.5)	
	6 세 이상	22 (4.1)	
가계 소득	100 만원 이하	28 ( 5.2)	222.869 (1.050)
	101 ~ 200 만원	256 (47.8)	
	201 ~ 300 만원	194 (36.2)	
	300 만원 이상	40 ( 7.5)	
취업 시간	7시간 30분 미만	79 (15.2)	8시간2분(2.032)
	7시간30분 ~ 8시간30분 미만	262 (50.4)	
	8시간40분 ~ 9시간40분 미만	95 (18.2)	
	9시간 40분 이상	84 (16.2)	
직업 지위	전문·관리직	96 (17.9)	
	준전문·기술직	161 (30.0)	
	사무직	204 (38.1)	
	판매·서비스직	69 (11.1)	

R<sup>2</sup>를 제시하였다.<sup>2)</sup> 경로계수는 회귀분석에서의 회귀 계수와 유사한 것으로 인접한 두 변수간의 직접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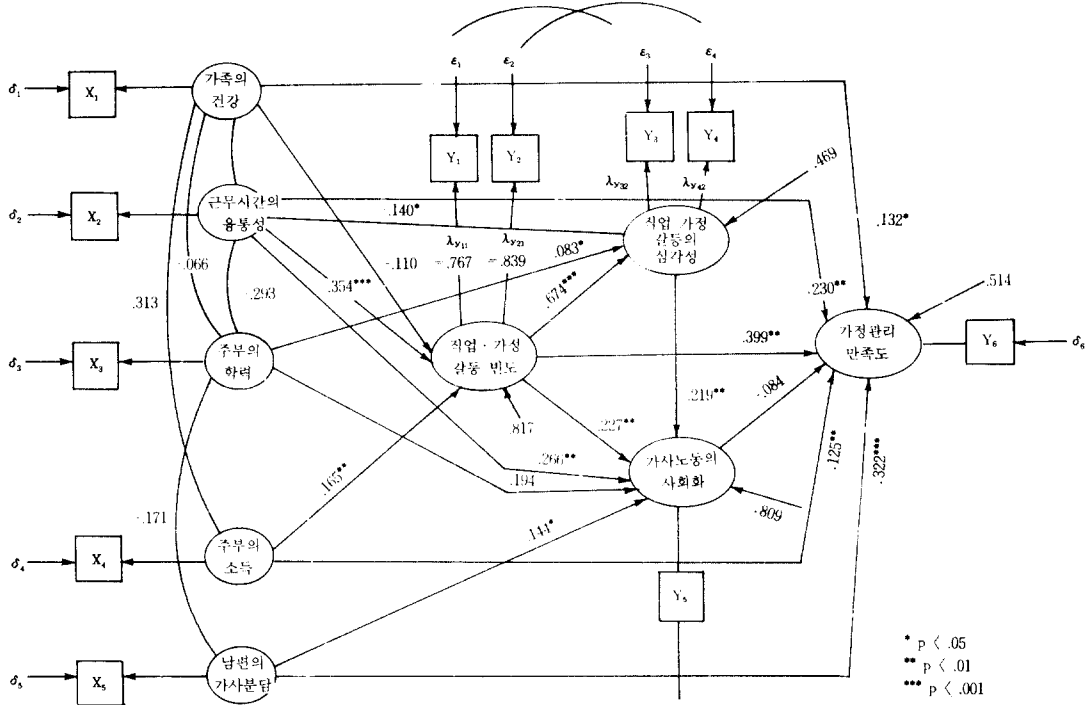
먼저 직업-가정갈등 빈도( $\eta_1$ )에 대해 시간갈등요인과 긴장갈등요인이 부하되는 정도를 〈그림 2〉에서 보면 시간갈등 빈도( $\lambda_{y11}=0.767$ )보다 긴장갈등 빈도( $\lambda_{y12}=0.839$ )의 상대적 중요도가 더 높아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빈도에서는 긴장갈등이 시간갈등보다 약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가정갈등 빈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무시간의 융통성과 주부의 소득이었다.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직업-가정갈등 빈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gamma_{12} = -0.354$ ). 근무시간이 융통적이지 못할수록 취업주부는 직업-가정

갈등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소득은 직업-가정갈등 빈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15}=0.165$ ).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가정갈등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갈등과 긴장갈등 수준이 낮다고 한 구혜령(1991)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직업-가정갈등 빈도는 본 수정모형을 통해 18.3%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183$ ).

직업-가정갈등 심각성( $\eta_2$ )에 대해서 시간갈등요인과 긴장갈등요인이 부하되는 정도를 〈그림 2〉에서 보면 시간갈등의 심각성( $\lambda_{y21}=0.886$ )이 긴장갈등의 심각성( $\lambda_{y22}=0.807$ )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직업-가정갈등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

2) 〈표 4-3〉 〈표 4-4〉 〈표 4-5〉도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빈도, 직업-가정갈등 심각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도에 관한 수정모델

〈표 4-2〉 관련변수가 직업-가정갈등 빈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및 표준오차

구조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gamma_{11}$ (가족의 건강→직업-가정갈등빈도)	.048	0.026	-.110
$\gamma_{12}$ (근무시간의 융통성→직업-가정갈등빈도)	.272	0.066	-.354***
$\gamma_{14}$ (주부의 소득→직업-가정갈등빈도)	.127	0.040	0.165**
R <sup>2</sup>		0.183	

\*\*p < .01, \*\*\* p < .001

는 변수는 근무시간의 융통성과 주부의 학력 및 직업-가정갈등 빈도로 나타났다(표 4-3).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직업-가정갈등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쳐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작을수록 직업-가정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22} = -0.14$ ). 주부의 학력은 직업-가정갈등의 심각성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gamma_{23} = -0.083$ ). 이것은 학력이 높은 주부의 갈등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Voydanoff & Kelly, 1984;

최자령, 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직업-가정갈등 빈도는 직업-가정갈등 심각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 $\beta_{21} = 0.673$ ) 갈등을 자주 경험할수록 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모델은 직업-가정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53.1%의 설명력을 갖는다( $R^2 = 0.531$ ).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배경변수 중 가사노동사회화( $\eta_3$ )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gamma_{32} = 0.266$ )

(표 4-3) 관련변수가 직업-가정갈등 심각성에 미치는 경로계수 및 표준오차

구 조 경 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gamma_{22}$ (근무시간의 융통성→직업-가정갈등 심각성)	-0.206	0.136	-0.140*
$\gamma_{32}$ (주부의 학력→직업-가정갈등 심각성)	-0.122	0.060	-0.083*
$\gamma_{21}$ (직업-가정 갈등빈도→직업-가정갈등 심각성)	1.297	0.098	0.674***
R <sup>2</sup>	0.531		

\*p < 0.05, \*\*\* p < 0.001

근무시간이 융통적일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근무시간이 융통적일수록 직업-가정갈등을 경험하는 빈도가 적고, 그 심각성도 적을 것이므로 가사노동사회화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관심을 끄는 것이다. 주부의 학력은 가사노동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33}=0.194$ ). 이것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더 많이 사회화한다는 선행연구결과(Bellante & Foster, 1984; 이기영, 1987; 소연경, 1989; 이기춘 등, 1989; Yang & Magrabi, 1989; 이은주, 1991)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부의 소득은 가사노동사회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해 볼 때 가계소득은 풍부한 물질자원을 제공하는 재정적 복지자원이므로써 주부의 가사노동을 용이하게 하는 가사노동사회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Goebel & Hennon, 1982; 이기영, 1987; 이기춘 등, 1989; 조성은, 1990), 주부의 소득은 가사노동사회화를 위한 재정자원으로써만 파악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가사노동사회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31}=0.144$ ). 직업-가정갈등 빈도와 직업-가정갈등 심각성은 가사노동사회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_{31}=0.226$ ,  $\beta_{32}=0.221$ ). 즉, 직업-가정갈등을 자주 경험하고 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취업주부의 역할과중이 편의품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Reilly (198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며, 직업-가정갈등과 가사노동사회화수준이 상관성이 있다는 이연숙

등(199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취업주부는 직업-가정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사회화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가사노동사회화는 직업-가정갈등의 대처방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연구모델이 가사노동사회화를 설명해 주는 설명력은 19.1%로 나타났다( $R^2=0.191$ ).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였다( $\gamma_{44}=0.323$ )(표 4-5). 근무시간의 융통성도 가정관리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_{42}=0.234$ ).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클수록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취업주부가 가정관리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gamma_{41}=0.132$ ) 가정관리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소득이 많을수록 가정관리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gamma_{45}=0.125$ ). 직업-가정갈등 빈도는 가정관리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업-가정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정도는 갈등빈도와 달리 가정관리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사회화는 가정관리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_{43}=-.086$ ). 가사노동사회화가 가정관리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그 경향도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취업주부가 이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을 심각하게 인지할 때 차선의 가사노동수행방안으로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지만 그것이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4) 관련변수가 가사노동사회화에 미치는 경로계수 및 표준오차

구 조 경 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gamma_{32}$ (근무시간의 융통성→가사노동사회화)	0.655	0.231	0.266*
$\gamma_{33}$ (주부의 학력→가사노동사회화)	0.477	0.136	0.194**
$\gamma_{35}$ (남편의 가사노동분담→가사노동사회화)	0.355	0.172	0.144*
$\beta_{31}$ (직업-가정갈등 빈도→가사노동사회화)	1.297	0.098	0.674*
$\beta_{32}$ (직업-가정갈등 심각성→가사노동사회화)	0.365	0.130	0.219*
R <sup>2</sup>		0.191	

\* p &lt; 0.05, \*\* p &lt; 0.01

(표 4-5) 관련변수가 가정관리만족에 미치는 경로계수 및 표준오차

구 조 경 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gamma_{41}$ (가족의 건강→가정관리만족)	0.149	0.065	0.132*
$\gamma_{42}$ (근무시간의 융통성→가정관리만족)	0.462	0.149	0.230**
$\gamma_{44}$ (주부의 소득→가정관리만족)	0.251	0.085	0.125
$\beta_{45}$ (남편의 가사노동분담→가정관리만족)	0.648	0.150	0.322***
R <sup>2</sup>		0.486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 V. 결론 및 제언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과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가정갈등 빈도에 있어서 긴장갈등이 시간갈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갈등상황에서는 긴장갈등이 시간갈등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시간의 융통성과 주부의 소득이 갈등 빈도에 영향을 미쳐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적고 주부의 소득수준이 높을 때 갈등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

둘째, 직업-가정갈등의 심각성에서는 시간갈등이 긴장갈등보다 더 중요하여 갈등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시간갈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업-가정 갈등을 자주 경험하고 근무시간이 융통적이지 못하고 소득이 많고 학력수준이 낮으면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지한다. 여기에서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갈등의 빈도와 심각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요구요인인 동시에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주부의 소득은 직업-가정갈등에 대해서 요구적으로, 학력은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사노동사회화에는 직업-가정갈등 빈도와 직업-가정갈등 심각성, 주부의 학력과 남편의 가사분담이 영향을 미쳐 주부의 학력이 높고 남편이 가사분담을 많이 할수록, 갈등을 자주 경험하고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가사노동사회화를 더 많이 하므로 취업주부는 직업-가정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정관리만족에는 가족의 건강상태와 근무시간의 융통성,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그리고 직업-가정갈등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가정갈등 빈도는 가정관리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갈등의 심각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갈등을 자주 경험하면, 가정관리만족도는 낮아지며 갈등

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주부는 가사노동사회화를 많이 하는데, 가사노동사회화는 가정관리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의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배경변수에 따라 직업-가정갈등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심각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사노동사회화와 가정관리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후 직업-가정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갈등의 빈도와 심각성을 분리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주부의 직업지위를 설명하는 학력, 소득,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직업-가정갈등의 빈도와 심각성, 그리고 가사노동사회화에 각각 다른 성격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업지위라는 포괄적인 변수보다는 취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독자적인 성격을 잘 고려하여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분담은 취업주부의 적응에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연구도 취업주부의 남편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다양한 생활영역의 가사노동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시장상품이 가사노동사회화에 얼마나 바람직하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을 그러한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으로 한정시켜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가정자원관리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결과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과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정관리 영역에서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등에서 연구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영역간 이론의 접목이 계속 시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밖에, 취업주부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취업주부의 적응에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맞벌이가정의 복지를 증진시

킨다는 측면에서 여성과 주부의 근무여건뿐아니라 남성과 남편의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해결은 직업환경이나 사회적 제도의 보완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일부 기업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택근무제나 가변근무제(한국일보, 1993)의 활용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서 가사노동사회화가 효과적인 가사노동수행방안이 될 수 있도록 주부자신과 가정, 기업, 사회 각 측면에서의 인식전환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남편의 가정역할충진을 위해서 먼저 남성의 가정역할수행에 대한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남편이 주부와 가정역할을 공유하거나 역할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평등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구혜령.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소연경. 1987. "주부의 요구임금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송혜림. 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기춘, 이은영, 이기영, 황인경, 김민자, 김영옥. 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연구-서울시 가계의 의·식·주생활관련 상품대체와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 : 115-132.
- 6) 이승미. 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연숙, 두경자. 1992. "가정관리행동이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 43-52., 유가효, 이순형, 조재순. 1991. "맞벌이가

- 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 8) 이은주. 1991.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임정빈. 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임혜경. 1991. “가정관리연구에서의 체계론적 접근과 인간생태학적 접근에 관한 검토.” 『한국생활과학연구』 9권 : 191-211.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 11) 정혜정. 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조성은. 1990.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최자령. 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갈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최호숙. 1992.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취업주부 가정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갈등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한경미. 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Becker, G.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s Journal* 75(299) : 493-517.  
———,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7) Bellante, D., & Foster, A.C. 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4) : 700-707.
  - 18) Blood, R.O., & Wolfe, D.M. 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 Free Press.
  - 19) Chung, H. 1992. Effects of conflict with mothers-in-law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Korea daughters-in-law.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 20) Douglas, S.P. 1976. Cross-national comparisons and consumer stereotypes : A case study of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in the U.S. and Fra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 : 12-20.
  - 21) Goebel, K.P., & Hennon, C.B. 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r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 63-78.
  - 22) Greenhaus, J.H., & Beutell, N.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 76-88.
  - 23) ———, 1989. The intersection of work and family roles :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organizational issues. : 23-44 in Goldsmith E.B(eds), *Work and family*. Newbury : Sage Publications.
  - 24) Harrison, A, & Minor, J. 1978. Interrole conflict, coping strategies and satisfaction among black working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 799-805.
  - 25) Kopleman, R.E, Greenhaus, J.H., & Connolly, T. F. 1983.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 198-215.(Burke R.J, 1988에서 재인용).
  - 26) McCracken V.C., & Brandt, J.A. 1990. Time value and its impact a household food expenditures away from ho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4) : 267-285.
  - 27) McCubbin, H.I., & Patterson J.H. 1982. Family adaptaion to crises. In H.I. McCubbin, A. Cauble, & Patterson, J. (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 28) Meeks, S., Arnkoff, D.B., Glass, C.R., & Notarius, C.I. 1985. Wives' employment status, hassles, communication, and relational efficacy : intra-versus extra-relationship factors and marital adju-

- atment, *Family Relations* 34 : 249-255.
- 29) Moore, K.A., & Sawhill, I.V. 1978. Implications of women's employment for home and family life : 201-255. In Stromberg, A.H. & Harkess, S.(ed). *Women working*. Palo Alto Ca : Mayfield Publishing Co.
- 30) Nickols, S.Y., & Fox, K.D. 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 197-208.
- 31) Reilly, M.D. 1982. Working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 407-418.
- 32) Rettig, K.D., & Metzger, N.M. 1986. Father's involvement in household activities, *Journal of Consumer and Home Economics* 10.
- 33) Schultz, T.U. 1973. Women's new economic commandments, in *Families of the Future*. Ames : Iowa State University Press.(이기영, 1987에서 재인용)
- 34) Skinner, D.A. 1980. Dual-career family stress and coping :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29 : 473-481.
- 35) ———, 1983. Dual-career families : strains of sharing. In McCubbin, H.J., & Figley, C.R.(ed.) *Stress and the family*. NY : Bruner/Mazel.
- 36) Staines, G.L., & Pleck, J.H. 1983. *The impact of work schedules on the family*. Ann Arbor, MI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37) Strober, M.H., & Weinberg, C.B. 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 338-347.
- 38) Voydanoff, P., & Kelly, R.F. 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881-892.
- 39) Weagly, P.O., & Norum, P.S. 1989. Household demand for market purchased, home producible commodit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3) : 6-18.
- 40) Yang, S., & Magrabi, F.M. 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2) : 133-147.